

남매 듀오 악뮤 “사람이 성장하듯 음악적으로도 성장했어요”

1년 2개월만에 신곡 ‘해프닝’ 발표
“싱글이라 비교적 가벼운 마음으로 작업
정규앨범 발매 전 선보이는 간식 같은 곡”



싱글 앨범 ‘해프닝’

“한 번의 눈빛으로 사랑하기엔 우리 너무 어려 / 답변에 만나면 못 본 척하고 지나쳐줘” (‘해프닝’ 중)
남매 듀오 악뮤(AKMU)가 1년 2개월 만에 신곡인 ‘해프닝’을 들고 돌아왔다. 싱글 형태로 발매되는 이번 곡은 전작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는 거지’와 스토리가 이어진다. ‘뺏어질 거 같아 아파하는’ 이별을 겪은 주인공이 시간이 흘러 새로운 사랑을 마주하게 됐을 때 이야기를 담았다.
작사·작곡을 맡은 이찬혁은 최근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상처 받고 경계심 있는 캐릭터가 사랑의 기회가 찾아왔을 때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에 대한 곡”이라고 소개했다.
“싱글이라 비교적 가벼운 마음으로 작업했는데, 추후 발표하는 정규앨범과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노래입니다. 간식처럼 나눠 드리기 좋은 곡이라 생각해서 자신 있게 들고 왔어요.”
동생 이수현은 “정규를 만들 때는 피와 살을 갈아서 대한민국 가요계에 한 획을 그을 명반 만들자는 마음으로 한다”면서 “싱글이나 미니앨범은 환기가 필요할 때, 재밌게 만드는 데 중점을 둔다”고 설명했다.
이들이 지난해 9월 발표한 정규 3집 ‘항해’는 작품성 면에서 성장한 것은 물론 대중성까지 완벽히 사로잡았다. 타이틀곡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는 거지’는 발매 당시 주요 음

원 차트 1위를 석권했고, 나온 지 1년이 훌쩍 지난 지금도 멜론 등에서 10위권 대 순위를 유지하며 오랫동안 사랑받고 있다.
“많은 분이 영감을 어디서 받느냐는 질문을 해요. 하지만 영감이라고 하기엔 너무 거창해요. 20대 중반인 제가 쓸 수 있는 가사와 내용이 자연스럽게 제 얘기가 되고 앨범이 되거든요. 그래서 억지스럽지 않다는 평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이찬혁)
그는 자신을 두고 ‘천재’라 일컫는 것에 대해서도 “누구나 고유의 능력이 있고 나는 그게 잘 발현된 것일 뿐”이라며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의 지점을 꼬집어낸다면 누구나 천재적인 능력을 펼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처럼 악뮤에게는 ‘천재’, ‘음원 강자’ 등 수식어가 내내 따라 붙는다.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젊은 아티스트이기에 대중은 이들이 새 앨범을 발표할 때마다 얼마나 음악적으로 성장했는지 기대가 크다. 그러나 악뮤는 이런 시선에 크게 부담을 느끼지는 않는다고 했다.
이찬혁은 나이가 들면서 사람이 변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듣는 분들은 우리 음악이 달라진 것 같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냥 커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저희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더 어린 적이나 어른스러운 적을 안 했어요.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으로서 성장한다면 똑같이 음악적으로도 성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수현)
이들은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전국 투어를 취소하는 등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다양한 시도를 하며 음악 보폭을 넓히고 있다.
이수현은 데뷔 후 처음으로 솔로곡 ‘에일리언’을 선보였고, 이



악동 뮤지션 이찬혁(왼쪽)과 수현 남매

찬혁 역시 솔로 앨범을 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에일리언’과 ‘해프닝’에서 다른 작곡가와 공동작업을 하며 협업 가능성도 활짝 열었다.
이찬혁은 이수현이 JTBC ‘비긴어게인’에서 이소라와 함께 자신의 곡 ‘달’을 부른 것을 보고 감탄사가 저절로 나왔다고 하며 “함께 노래를 한번 작업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이수현 역시 “선배님이 오케이만 해준다면 저희는 너무 영광”이라며 웃었다.
두 사람은 꾸준히 대중의 사랑을 받는 비결로 “확실한 역할 분담”을 꼽기도 했다. 이찬혁이 작곡에 몰두하고 이수현은 그 곡을 사람들에게 잘 표현하면서 시너지를 낸다는 것. /연합뉴스

‘우리 이혼했어요’ 첫 방부터 시청률 ‘폭등’

실제 이혼 부부 이영하·선우은숙 출연 금요일 예능 1위

실제 이혼 부부의 출연으로 기대를 모았던 TV조선의 새 예능 프로그램 ‘우리 이혼했어요’(사전)가 8.9%의 높은 시청률로 출발하면서 금요일 밤 예능의 왕좌를 차지했다.
21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방송된 TV조선 ‘우리 이혼했어요’ 1회 시청률은 8.923%-8.995%(비지상파 유료가구)를 기록했다.
이로써 TV조선의 간판 예능 ‘미스 트롯’, ‘미스터 트롯’, ‘아내의 맛’, ‘연애의 맛’, ‘사랑의 콜센타’ 등을 만든 서해진 제작본부장은 다시금 그의 기획력을 입증해 보였다.
첫 방송에서는 이혼 부부인 배우 이영하와 선우은숙, 유튜브 최고기와 유깃잇이 재회해 그동안의 속 이야기를 털어놓으며 눈물을 보이는 모습이 담겼다. 13년 만에 진행 호흡을 맞춘 김원희와 신동엽의 입담은 변함없이 시청자들에게 큰 웃음을 안겼다.
이영하와 선우은숙은 이혼 15년 만에 처음으로 둘만의 시간을 보냈다. 과거 두 사람의 첫 데이트 장소였던 청평에서 2박 3일을 보내게 된 둘은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털어냈다.
선우은숙이 이혼 뒤 있었던 한 재벌 회장과 스캔들에 대해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었다”며 억울함에 극단적 생각까지 했다고 말하자 이영하는 “당시 루머를 믿지 않았고 문제 삼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혼 7개월 차에 접어들어 유튜브 최고기와 유깃잇은 밝은 모습으로 재회해 이야기를 나눴다. 침대에서 마사지를 해주는 등 거침없는 스킨십을 하는 모습도 보였다.
두 사람은 이혼 전 유튜브를 통해 연애, 결혼, 육아 등 자신들의 생활을 공개해오면서 많은 관심을 받은 바 있다.



이날 방송에서는 두 사람의 재회 장면 외에도 5살 아이를 혼자 키우는 최고기의 모습과 유 깃잇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보이는 최고기 아버지의 모습 등이 담기기도 했다. 최고기는 자신의 아버지가 결혼 전부터 상대방에게 상처를 줬다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앞으로 두 이혼 부부가 서로에게 쌓인 오해와 감정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기대를 모은다.
한편, 전날 tvN ‘신서유기 8’은 5.1%(비지상파 유료가구), MBC TV ‘나 혼자 산다’는 8.2%, KBS 2TV의 ‘위 캔 게임’은 0.9%-1.2%의 시청률을 보였다. /연합뉴스

차인표 주연 영화 ‘차인표’

내년 1월 넷플릭스서 공개



배우 차인표가 주연을 맡은 영화 ‘차인표’가 내년 1월 넷플릭스에서 공개된다.
넷플릭스는 내년 1월 1일 대스타 차인표가 전성기 영예를 되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과정을 담은 코미디 영화 ‘차인표’를 단독 공개한다고 최근 밝혔다.
영화 속 차인표는 실제 모습과 가상의 설정을 오가며 친근하면서도 열정적인 실제 이미지를 극중 캐릭터에 투영한다. 매니저 김아람 역은 배우 조달환이 맡았다.
당초 ‘차인표’는 롯데엔터테인먼트가 투자·배급에 참여해 극장 개봉이 점쳐졌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넷플릭스에서 공개하기로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영화 업계는 코로나19 유행으로 극장을 찾는 관객이 줄면서 극장 공개가 아닌 넷플릭스와 같은 실시간 동영상 스트리밍 플랫폼(OTT) 공개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 /연합뉴스

태양광발전소 선착순 분양!!

20년 장기계약으로 안정된 연금식 소득 보장 금융이자소득에 비해 높은 수익률 보장

분양
예정
지역

고흥 / 해남 / 여수 / 순천 / 광양 / 강진
남원 / 영주 / 음성 / 김천 / 천안 등

100kw / 150kw / 200kw / 300kw / 500kw / 600kw / 700kw / 1MW 등

※ 각지역 맞춤형 발전소 가능

- 인허가 및 시공
- 각 지역 지사장 모집



한일솔라에너지

상담전화 0505-337-3500
0505-362-9000

대표전화 1522-3097 / FAX 0505-313-3500
본 사 광주광역시 북구 독립로 349(중흥동 665-29)